

규범화된 모양새 거부하는 미술

경희가 영예로운 예술인

속발의 생명력을 담은 경희미술
씨뿌려 급게 다듬은 발이랑에
싸이 트일 때면 먼저 나와 파랗
게 활개치는 눈이 잡초이다. 인
간의 손으로 규격화한 제한된 존
재, 그것은 자연상태에서 적응된
잡초의 자생력을 따를 수 없음을
흔한 가르쳐주고 있다. 속은 게
으른 농자의 밭에 틀림없이 나타
나 개관치기 일쑤로 꾸러기같은
눈이다. 일단 뿌리내렸다하면 아
예 썩대밭이 되고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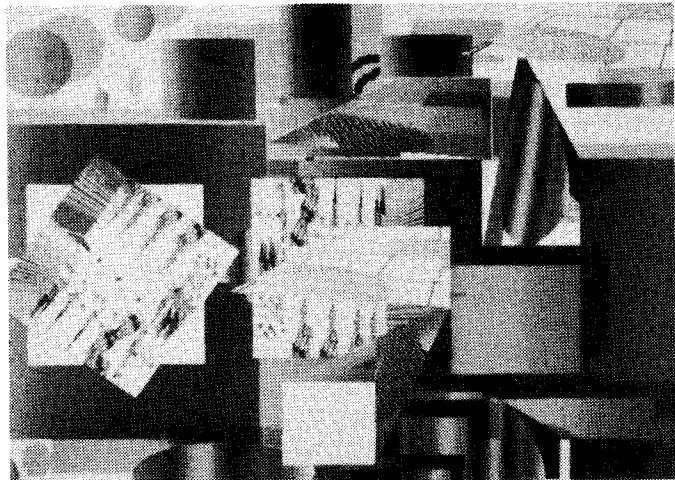
분명 속이 지닌 완강한 생명력
으로 스스로 확장하며 자생한다
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외형
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뿌리의
내밀한 힘, 아성의 순수한 생명
성의 지력, 이것이 경희미술의 4
반세기 역사에 동력으로 살아
있는 상징적 의미라 하겠다.

경희미술의 첫출발, 1966년으
로부터 27년, 화단배출 24년의
역사, 당시 70년대 화단의 세찬
물결이 열거리에 비쳐서 바라볼
뿐이었다. 열명남짓 소수의 배출
인원으로 낙담한 열등의 눈초리
로, 인쇄술로 화단을 흔들어대
는 양대진영의 놀이를 외면하기
도 하고 선망하기도 한 수세월,
들만에 바람따라 멋대로 날아 헤
멜 수밖에 없는 풀씨처럼 분방
야생초의 성분을 타고 난 경
희미술의 출발이었다.

무제화의 잠재력
그 해동의 근원
경희미술의 역사에서 서서히
뻗어나는 진한 혈통의 굵직한 때
박소리가 지금은 북소리로 울려
나고 있고 화단의 큰 시선이 우
리를 확인하고 있다. 지금은 한
땀터 부르짖는 열등한 자리에 그
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차라

리 무시해버리고 속발로 덮어
가고 있다.

한 방향의 규격화된 모양새를
거부하는 경희의 혈통속에는 큰
물의 흐름에서 찾을 수 없는 독



문화 시리즈 — 미술

왕성한 자생력을 가진 '들풀'
을 상징하듯 무제한의 예술양식
과 완전한 자유의 형식을 열풍으
로 삼는 다음의 작가들 소개한
다.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과학과 예술의 결합
김혜숙은 본교 미술교육과 1회

조형세계인 것이다. 먼저 기본이
미지를 착상하고 이것을 단위로
하여 확대, 축소, 반복, 절단하
여 변환시켜 줌으로써 통합공간
으로 구축해간다. 대체로 이미지
들이 유연한 곡선, 화려한 색채,
극적인 빛과 공간 결합 등 미화
적 시각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기계가 지닌
비인간화를 최소화하려고
초월적 요소가 공존하는 표현

▶ 컴퓨터 그래픽으로 인간의 원초적
표현성과 자연주의적 요소를
묘사하고 있다.

초월적 요소가 공존하는 표현
박종태(미교과 7회졸업)의 작
업은 의도적인 작위성을 최소화
하고 있다. 그의 구체적인 형태
들은 구체적 사실형태 그 자체의
묘사가 아니라 그 자신의 의식
흐름의 자취이고 자유로운 상상
력의 전개에 따라 시간, 공간의
일상성을 초월하고 있으며 '시점
의 자유이동' 혹은 '시점의 무
시'를 통해 현실성과 비현실성의
미묘한 일치 내지 공존성을 느끼
게 한다.

그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현실
성과 비현실성을 공유하고 있다
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어, 존재

고 있고 무기적인 형상의 기호화
로 내면감이 울려나오는 언어를
표출하고 있다.

정신적 내면의 깊이를 강조하
고 있고 차분한 분위기의 독특한
음질이, 빛어내는 화음처럼 정합
된 질서는 석판화의 표현방법을
통하여 달관된 기법에 조화롭게
나타나고 있다.

그의 작품활동의 양을 감히 비
교할 자가 없을 만큼 출품횟수가
빈번하고 개인전 9회, 국제전 수
십회에 달하고 있는 그는 미술에
전 관화분과 심사위원으로도 활
동하고 있어 경희미술인의 한국
화단 중진진출과 활동상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경기도, 경기도
에 출간하고 있으며 6월말 개인
전 준비로 작품에 열중하고 있
다.

새로운 도약의 소리
이제 경희미술은 동문작가의
수치적 열악성도 극복해가고 있
고, 그 작품세계에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만큼의 생명력과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 무한
한 잠재력과 예술력 자유정신의
활동을 살려 이제는 경희미술의
'속발'을 이루어야 할 때다.

이 글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동문미술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전 동문미술인들의 발전
을 기대한다.

최희수
(동문·장원전문대학교수)

문화단신

노래판국 꽃다지 공연

노래판국 꽃다지 '들꽃으로
피어나라'가 오는 25일과 26
일 오후 6시에 연세대학교 노
전극장에서 공연된다.

이 공연은 '제2회 민족예술
상' 수상작품인 꽃다지 1, 2, 3
의 예술적 총화로서 노래와
연극, 춤과 풍물 등 각 장르
의 장점을 살려 기획되었다.

또한 청년 학생들의 투쟁과
민족·민주운동정신의 결집력
을 강화해내고 새로운 대중투
쟁의 동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공연이기도 하다.

(문의: 831-3426~7)

'단한 교문...' 상영

문화부의 사전봉쇄로 제작
중지 상태에 있던 '장산곶매'
의 영화 '단한 교문을 열며'
가 완성되어 오는 24일 서울,
부산, 광주, 대구의 각 대학
에서 상영된다.

'단한 교문을 열며'가 문화
부의 탄압으로 녹음과 프린트
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난 3
월에 가진 영상극형태의 시사
회를 본 영화관계자의 도움으
로 완성되어 더 많은 관객들
에게 참교육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전교조는 이 영화의
교육문제에 대한 정치한 접근
과 영화의 건강함을 담보로
상영제출로 나섰다.

괴수병 평전 '암장'

괴수병선생 17주기를 맞
이해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산하 '일대기편찬위원회'가
이수병선생의 실천적 삶과 사
상을 그의 발자취를 따라 역
은 평전 '암장'을 출간했다.

이 책은 6·70년대 조직사건
들이 민족사에서 차지하는 위
상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회생의 관점이 아닌
그가 목숨을 바쳐가며 추구했
던 이상과 구체적 삶의 역정을
통해 조명하고 있다.

(지리산잡 34권8백원)

Electrics 정기공연

본교 그룹사운드 'Electrics'
가 '제5회 봄철정기공연'
을 오는 30일 오후5시30분에
크라운관에서 연다.

특정 음악분야에 대한 선
호보다는 각기 취향에 맞는
음악을 두루 섭렵한다는 회장
전명환군(무예·91)은 그룹사
운드다 건전한 대학문화로 자
립정신을 키우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생활속에 살아있는 문학

— '문맥' 회장 신재우군을 만나



금태 안경에 약간은 속스러운
듯한 표정을 짓는 '문맥' 회장
신재우(물리학과·89)군을 만난
곳은 학생회관 5층에 자리잡은
'문맥' 동아리방이었다.

평소에 글을 쓰고 싶었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 작년에
처음으로 당시의 '고향문화화
회'를 찾았을 때는 정말 외기만 했
을 것 같은 '글'이란

새로운 글쓰기를 솔직
하게 시인하는 그는
'이제 많이 부족한 제
가 회장이란 직책을
맡으니 사실 무척 힘든 실정인
니다'라며 소감을 간단히 말했
다. 많은 학우들이 문학에 관심
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출의

"항상 글을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아쉽기도"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이
리저리 휘둘러 다니는 것을 많
이 보았다는 그는 경희대 내의
침체된 문예 흐름에 차가운 샘
물과 같은 생명력을 불어 넣으
고 싶었다. 시를 접할 수 있는 학
내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대중적 때 타 문화동아리와 함
께 '경희문학인의 밤'을 열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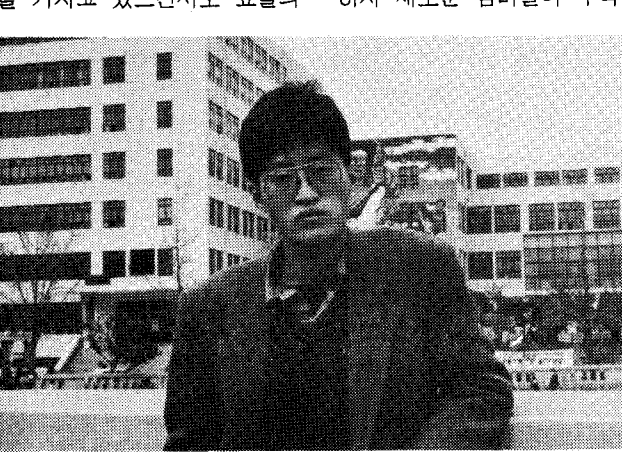
되려 2학기 말 '문맥'을 탄생시
켰다는 그는 선배들이 없어서 1
년동안 몸으로 부대끼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체계가 안정적이
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탱
해 오고 있는 것은 개인의 열
의 때문이라며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다졌다.

자칫 회원들의 치열한 고민과
갈등이 개인적
방향으로 나타
나기 쉬움을
지적하면서 서
로의 '민음'을
강조하였다. '밤에 혼자 동아리
방에 앉아 창밖의 불빛을 바라
볼 때면 그 불빛속에 살아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보인다고'라고
말하는 그는 그때마다 김수영씨
의 '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
니라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
이라는 말을 떠올린다고 한다.

그리고 '시를 바꾸기 위해
는 생활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
조하는 그는 일단 자신 주위의
생활들을 깊이 있게 보고 싶다
며 '늘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정말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살아
요'라는 신재우군은 비록 좁은
동아리방이지만 신입회원들로
복잡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말을 맺었다.

(김일형 기자)



◇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신재우군은 '시를 바꾸기
위해서는 생활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양한 창작기법, 독특한 작품세계 구축해 특유의 왕성한 생명력으로 경희 흐름 이뤄야

특한 작품세계를 각양각색의 다
양한 형식으로 구축하고, 순수
자유의 사고형태로 나타나고 있
다. 이것은 소수인의 시련에서,
척박한 조건에서, 극복이라는 훈
련을 통해 헤쳐나온 개척자적 자
존상이라 할 수 있다.

배출인의 수치적 열악성과 미
술교육과가 지닌 대외적 인식의
열등성이 이를 극복하는 힘으로,
새로운 개척의지로 발돋움하고,
감히 기성작가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독특한 분야, 특이한 형식
의 다양성은 우리 생존방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오늘날의 예술속에서 인간의
창조적 꿈과 야망을 충족시키려
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예술가
들은 여기에 자신들의 예술적 개
념을 부여함으로써 컴퓨터를 연
필이나 물감과 캔버스처럼 사용
하고 있다.

김혜숙의 컴퓨터그래픽 역시
과학의 세계와 예술이 결합되어
특징지워진 이미지들로 형태, 색
채, 공간이 통합된 극적인

컴퓨터그래픽협회 등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본교에 출강하
고 있다.

내면 깊숙이서 울려나온 현상
홍재연은 미교과 2회 졸업생으
로, 미술양식속에 드러난 의식화
물이 한국사회의 변화 양상만
큼이나 급한 변환을 이미 치른,
어찌 보면 혼돈의 양태로 계속
치닫고 있는 것같기도 한 시대상
에서도 처음부터 그 흐름에 구애
받지 않고 자기의 표현의식을 계
속 고수하는 작가이다.
사물의 외형적인 상을 거부하

가 우리의 일상적 시각에 의해
포착되는 감각과 합리성을 지
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는 사실을 화두위에 표출시키고
있다.

그의 범생명관적 존재인식은
색채와 형태가 주는 조형적 아름다
움에 의해서 호소력을 강화하
고 있고 누구나 부담없이 작품에
접근 할 수 있게 한다.

산수화의 한 획을
구기위한 노력
김대원(본교 미교과·대학원졸)

당신을 불러드립니다
4.19 일사를 기리며

화산한 몸날
당신을 불러드립니다
소리없는 슬픔의
과파인듯 빈약함도나

나에게도
조국이 있었습니까
수평되는 분노
조그마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눈물
파파한 이 밤에
당신의 화를
어리석게 두는
당신의 그 산과
절친하리만큼
슬픔과 피로로
당신의 세상의
너무나 두렵습니다
당신을 불러드립니다
당신을 불러드립니다
당신을 불러드립니다
당신을 불러드립니다

나에게도
조국을 사랑하는 삶이
있었습니까

박종태 <무예·89>

패적하고 생산적인 산업사회 창조

GoldStar

"걸어보지 않은 길"

인생을 단정짓진 못하지만 프로스트가 한 이야기는
기슴에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는 무수히 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한 길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걸어보지 않은 길에서는 오히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일.
최소성을 뚫 전문가로 설 수 있는 일.
성취와 보람, 기회와 끊임 없는 도전으로 인생을 치열하게
살찌울 수 있는 일.
훗날 인생을 뒤돌아 볼때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남들이 걸어보지 않은 길.

산업용 전기전자 부문의 金星産電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국내에 참고자료도 없고 Know-How도 부족해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히려 우리손으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형 원전용 로보트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기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현재 compiler형 언어개발 등 인공지능학의 응용부터
advanced 제어방법까지 첨단기술로써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한국을 리드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금성의
산전부에서 일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성산전부 연구소 마케팅팀장 공학박사 김광익

金星産電

●金星産電 ●金星計電
●金星機電 ●金星아니힐